

'87 夏期 防衛産業 세미나

—韓·美 防産協力 및 研究開發 政策發展方向—

'87 夏期防衛産業 세미나가 지난 8月 7日 全經聯會館 大會議室에서 關係機關과 防産業界 130餘名이 참석,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이 앞으로의 研究開發 및 發展方向에 대하여 國防研究院의 黃東準 博士, 國防部の 千吉成 博士를 모시고 盛況리에 開催되었으며 세미나 內容을 다음과 같이 紹介한다.



人 事 말

防 振 會
常 勤 副 會 長 柳 俊 馨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參席 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國事に 바쁘신 중에도 우리 防産業界를 위하여 主題發表를 맡아주신 國防研究院의 黃東準 博士, 그리고, 國防部の 千吉成 博士께 防産業體를 代表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防衛産業振興會가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가지게 된 것은 최근에 沈滯되어 있는 防衛産業 活動을 좀더 活性化 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防産 初創期에는 美國의 武器體系를 그대로 模倣生産하므로써 몇年 동안은 生産活動이 活潑

하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模倣生産은 그 限界에 벌써 도달하였다 할수 있고, 이제는 독립적인 研究開發에 의한 武器體系의 생산이나 模倣生産에 의해 蓄積된 技術과 충분한 勞動力을 밑바탕으로 하여 海外調達에 참여하는 길만이 우리 防産業界의 活路를 開拓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海外調達參與方案을 모색해 보고자今年 봄에, 韓·美 防産會議를 워커히에서 開催하여 韓·美 防産業體間의 民間次元에서의 協력을 증진시키는 機會를 가졌으며 항구적인

協力體制의 窓口을 마련키 위하여 이 會議에서 實務共同運營委員會를 구성키로 合議한 바 있고, 그 第1次會議을 87年 6月 30日 美國의 알링톤에 있는 美國防衛準備委員會(ADPA)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韓·美 防產共同運營委員會의 第2次會議은 87年 11月 중순경에 서울에서 開催하여 “共同研究開發 및 共同生産”, “질충교역 問題點과 機會”, “技術移轉問題” 등을 議題로 토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美國에서 개최한 第1次 共同運營委員會 參席길에는 캐나다와의 防產協力을 모색해 보고자 캐나다外務省과 防產關聯協會도 방문하여 會議을 가진 바 있으며, 여러가지 事項들을 토의하였고 向後 相互訪問을 통하여 서로가 協力해 나가기로 合議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本會에서는 海外協力活動을 통한 防產物資의 需要創出努力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會員社 여러분들도 海外防產協力活動에 적극적인 參與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特히 87年 5月 8~14日 까지 美國의 L.A市에서 개최키로한 韓·美 防產會議에는 많은 우리 防產業體들이 참여

하여 韓·美間 協力이 더욱 成熟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本 세미나도 이와 같은 防產協力 方案을 講究해 보고자 그동안 國防部와 國防研究院에서 연구해 온 “韓·美 防產協力 및 研究開發 政策發展 方向에 대한 案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防產業界도 模倣產業이나, 技術導入生産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武器體系의 研究開發에 의한 防產裝備의 國產化로 海外輸出을 伸張해 나가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政府의 支援에 의존하던 研究開發體制를 業體 스스로가 主導하는 研究開發體制로 발전해 나가야 할때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研究開發體制로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防產業界는 다함께 努力해야 하겠으며, 그와 같은 體制가 構築될때 우리의 防產經營基盤은 튼튼해질 것입니다.

本 세미나가 비록 짧은 時間입니다마는, 有益한 방안이 많이 도출되어 防衛産業 基盤擴充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여러분께 感謝드리면서 아무쪼록 많이 傾聽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美 防衛産業 協力方案

—防衛産業 協力協定(MOU)을 中心으로—

黃 東 準

1. 서 론

70년대의 방산에 대한 열성과 의욕이 80년대에 와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13년동아 연구개발 투자를 해 왔으며, 그 성과는 괄목할 정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고도정밀분야에

더욱 정신적 방산 생산구조에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제간 방산협력을 더욱 더 공고히 해야 하겠으며 미국은 우리를 직접 경영상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시 대응목표를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